

제목: 당신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1)

천국, 이미 시작되었어요(2)

- 천국(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대전제
 -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롬4.3)

(1)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다.** (마 19.23-24. 막 10.23-25. 눅 18.24-25)

(2)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영생을 얻는다. = 구원을 받는다.** (마 19.16-26/막 10.17-27/눅 18.18-27. 요 3.3,5,15,16,17, 36)

- 마 12.28.(눅 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 눅 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 있느니라'.

1.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 “천국은 공짜다!”

① Go to '**heaven**' free at no cost!

② Go to '**the kingdom of heaven**' free at no cost!

- 마 13.44.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의 놀라운 가치'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헬라 원어로 '사느니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능동/직설법 시제'이므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즉, 이미 시작된 천국'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음.

- 눅14.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눅14.26-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마10.37-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1) 천국을 '내세의 하늘 나라'로 보는 견해

-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 '천국(the kingdom of heaven)'
-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 신구약을 통틀어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음.

cf.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헬. 바실레이아. '나라'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아님에 주의!)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
을지어다 아멘.

① 새하늘과 새땅에 있는 새예루살렘.

• 계21장 ~ 22장 5절.

② 내 아버지 집.

• 요14.2-3.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③ 하늘에 있는 본향.

• 히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단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④ 낙원.

- 눅23.42-43.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구원받은 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질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음.

⑤ 천년왕국.

- 계20.1~10. 사65.17~25.

- 마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마13.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 마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 마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 마13.44. '천국'(= 하나님의 나라)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원. 현재/능동/직설법 시제이며, 과거 시제 아님. 참고로, NIV는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지 않으나, KJV와 개역개정은 정확하게 옮겼음).'
- 마13.45-46. 또 '천국'(- 인격화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원. 부정/과거/직설법 시제이며, 현재 시제 아님. 참고로, 개역개정은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지 않으나, KJV와 NIV는 정확하게 옮겼음).

- 마18.23-24.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 마20.1-2.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마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 마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마25.14.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2)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

- 계1.1-20. 서론.
- 계2.1.-3.22. 일곱 교회를 통해 예언적으로 교회 세대 묘사.
- 계4.1.-5.14. 교회 휴거(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후 하늘에서의 사건 묘사.
- 계6.1.-19.10. 7년 환난기 묘사.
- 계19.11-21.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묘사.
- 계20.1-3. 천년왕국 직전 사탄 마귀의 결박 묘사.
- 계20.4-6. 천년왕국 묘사.
- 계20.7-10.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과 사탄 마귀의 영원한 멸망 묘사.
- 계20.11-15.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묘사.
- 계21.1.-22.5. 새 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 묘사.
- 계22.6-21. 결론.

(3) 하나님의 나라(천국)를 교회로 보는 견해

- 마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이었던 천국의 확장과 구현이 오순절에 곧 탄생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위임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구절임.

(4) 국가(민족)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견해

- 출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눅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 백성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하느니라.
- 마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라.

- 욥 19.25-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히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단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2.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
- 마13.51-52.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헬라 원어로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는 뜻임. NIV도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로 번역함.

- 벨후1.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당신은 지금! 천국
에 거하고 있습니까?

제목: 당신은 지금! 천
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2)

천국, 이미 시작되었어요(3)

- 유 1.14-15.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 에녹은 장차 메시아 왕으로 오실 주를 믿음.

- 창5.21-24.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주)과 이 땅에서 삼백 년을 동행하며 통치를 받음. 따라서, 에녹은 모든 천국(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범임.

당신은 지금! 천국
에 거하고 있습니까?

- 히11.5-6.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주)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음.